

대한양계협회 소식

계란 수출 재개

계란이 7월 24일부터 다시 수출되기 시작했다.

그간 국내 시장가격이 상승해서 잠정 중단되었던 계란이 6월말부터 다시 비수기에 접어들어 계란값이 하락하자 본회와 사료협회가 서로 협조하여 수출을 다시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수출도 수출선은 홍콩과 사우디 아라비아이다.

이번에는 국내 유력 일간지들이 계란 수출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여 수출로 인한 계란 가격 안정은 물론 일반 소비자의 계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 이번 수출은 서울과 대구에서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지방 양계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어려울 때 유관 단체끼리의 협조무드는 높이 평가될 만 하며 이번 수출로 대한양계 협회와 한국사료협회의 불황에 대한 공동운명체로서의 협조체제가 더욱 공고히 되었다.

다음은 국내 일간지의 계란수출 재개에 따른 보도 내용이다.

양계업계 돕는 사료협

○...양계업계의 출혈 수출로 인한 결손을

사료업계가 보전해 주고 있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원청 업체가 하청업체를 괴롭히는 일반적인 기업풍토와 기이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전국 양계업계는 5월들어 잠시 회복세를 보이던 달걀수요가 6월들어 헛과일이 풀리면서 다시 격감, 개당 생산원가 33원보다 5원이나 싼 28원씩에 거래되자 사료협회의 지원을 받고 홍콩 등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 결손보전 기금은 전국 60여개 사료업자들이 각출한 1억 2천여만원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것.

사료업계의 양계업계 지원은 연간 전국사료 소비량 1천 2백50여 만톤의 사료중 63%인 7백50여만톤을 양계업계가 소비하고 있어 양계업계의 도산이 곧 사료업계에 치명타를 주기 때문인데 이같은 상호지원은 뿌리혹박테리아와 콩과 식물이 공존공생하는 생태계의 지혜같다는 평이다.

전국의 1일 달걀생산·소비량은 약 1천5백만개이나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 수요가 줄어 4일 소비량인 약 4천만개가 계속 체화상태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습도·기온마저 높아진 날씨에 저장처리를 못한 업자들이 달걀을 땅속에 파묻거나 수송 중고속도로변에 쏟아버리고 달아나는 「기근속의 풍요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일보 1981年 7月30日

달걀 2,000만개 증중에 출혈수출... 개당 15원씩 밀저

★...양계업계는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달걀 2천만개를 증중에 수출한다.

양계업계는 지난 5월에도 달걀재고가 9천만개나 쌓이자 홍콩과 사우디아라비아에 81만개를 수출, 달걀값을 유지시켰는데 이번에도 다시 값이 떨어지자 7월에 1백8만개를 수출하고 또 2천만개를 수출하고 또 2천만개를 수출키로 한것.

값은 FOB가격으로 개당 29원이다. 양계업계는 수출가격이 생산가격보다 15원 정도 낮으나 쌓인 달걀을 그대로 버릴 수도 없어 출혈수출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

중앙일보 1981年 7月 29日

달걀 54만개 홍콩에 수출

54만개의 달걀이 또 「홍콩」에 수출됐다.

대한양계협회와 사료협회는 지난 5월 「홍콩」과 「사우디아라비아」에 81만개를 수출한데 이어 28일에는 「홍콩」에 또 54만개를 수출했다.

수출가격은 큰것 한개에 29원 (본선인도가격)으로 국내 농장도 가격보다 낮아 사료협회에서 한개 15원씩을 생산자에게 보조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수출가격은 지난 5월의 수출가격보다 개당 2원 50전이 높은 것이다.

업계는 연말까지는 2천만개를 더 수출한다는 계획아래 현재 「사우디」 등 중동산유국과 상담을 벌이고 있으며 8월초 「사우디」에 54만개를 선적키로 이미 합의했다.

한편, 현재 시중 달걀값은 큰것이 한개 40

~45원으로 지난 5월보다 10~5원이 떨어졌으며 그나마 수요감퇴로 5천여만개가 체화돼 있다.
동아일보 1981年 7月 29日

열기를 띠었던 제 4차 이사회

7월 15일 본회 회의실에서는 1981년도 제 4차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당면문제가 많아 이사회개최가 절실히 요구되던 때였던 만큼 그 열기는 대단했다.

협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자는 이상윤 직무대행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의 주요토의내용은 ① 홍보기금의 지출방향 ② 계란수출지속여부 ③ 도계법에 대한 찬반의론 등을 꼽을 수 있는데 계란수출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이사들이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며 도계법에 대해서는 기왕 시행하려거든 강력히 시행하여 완전히 뿌리를 내리게 하여 더 이상의 파동을 없애자는 의견이 주종을 이루었는데 이에 덧붙여 약 3~6개월의 여유를 주어 입추조절의 기회를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그리고 상정된 부의안건으로는 전북의 신가입회원 5명에 대한 승인, 경기부양대책 강구, 하계강습회 개최, 점정소 이전 및 지부·분회 회원 회비 보조 문제 등이 있었다.

평택분회 창립 1주년 기념 야유회

본회 평택분회(분회장: 이상봉) 지난 7월 15일 경기도 평택군 만호리 행당섬에서 회장 이상봉씨 및 회원 33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 1주년 기념 야유회를 가졌으며 더욱 단합하고 업계발전과 정화를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